

새한미디어, 토너-접착제 사업 추진

2007년까지 총 256억원 투자 ... 시장점유율 1위에 기존설비 보완 활용

새한미디어(대표 공태근)가 토너(Toner), ACF(Anisotropic Conductive Film), TC(Tape Cable), DVD용 접착제 등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.

새한미디어는 공시를 통해 2007년까지 총 256억원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, 신규사업 부문에서 2005년 380억원, 2007년 81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.

새로 추진하는 복사기·프린터용 토너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2년 국내 최초로 토너의 주 원료인 토너용 자성체를 자체 개발·생산하고 있기 때문에, 품질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또 LCD, PDP 등 첨단 디스플레이 소재 및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ACF(Anisotropic Conductive Film), 전자제품·자동차 배선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용 절연·난연성 TC(Tape Cable), DVD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DVD용 접착제는 세계 Audio 및 Video Tape 시장점유율 1위인 기술력을 토대로 대부분 기존 설비를 보완·개조해 사용함으로써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새한미디어는 2002년 매출 3004억원, 영업이익 469억원, 당기순이익 135억원의 경영성적을 달성했으며, 2003년 상반기에도 당기순이익 87억원의 경영성적을 거두었다.

또 9월8일 246억원의 채권단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2003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200%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9/05>